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고 노동자·서민 쥐어짜는 부패한 박근혜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 - 125주년 메이데이 학생들이 함께하자!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기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노동자들은 메이데이를 계기로 노동조건 개선, 제국주의 전쟁 반대, 사회 혁명 등을 위해 투쟁해 왔다. 남한에서 메이데이는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 왔다. 이승만은 메이데이를 아예 없애 버렸고, 박정희는 메이데이 대신 ‘근로자의 날’을 제정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지자 김영삼 정권은 1994년 ‘근로자의 날’을 다시 5월 1일로 변경하고 휴일로 제정했다. 메이데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 단결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투쟁의 날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메이데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는 부패한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의 날이다. 박근혜 정부가 구조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날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사실들이 더 밝혀져 자신의 정당성이 더 추락하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경제 위기 고통전개 시도에 차질을 줄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박근혜는 집요하게 진실 규명을 방해해 왔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쓰레기 시행령”을 발표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박근혜 정부는 ‘성완중 리스트’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 운동의 압력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던 세월호 인양을 공식 선포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시행령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메이데이 때 1박 2일 철야 농성을 하며 시행령 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세월호 진실 파문기에 맞서 노동자들도 함께 투쟁해 왔다. 박근혜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 낼 민영화와 규제완화도 계속 밀어붙여 왔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이득을 보장해 주면서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노동자 공격의 일환으로 박근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고, 임금을 더 줄이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운운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도 ‘눈높이’를 낮추라며 저질 일자리를 감내하라고 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공무원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추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까지 개악하려고 한다. 이는 오히려 국가의 노후에 대한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박근혜의 노동자 공격을 저지하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주노총은 메이데이에 10만 노동자를 서울에 모으겠다고 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도 메이데이 때 12만 노동자를 모은다고 한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 강력해지고 커진다면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으려는 박근혜의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힘을 주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를 건설하자. 이후에도 꾸준히 벌어질 노동자 투쟁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연대는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함께 참가합시다

5월 1일

2015 세계 노동절 대회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

세월호 추모문학제 - 진실을 밝혀라 밤을 밝혀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정의대를 향한 행동, 대통령령 폐기하라 오후 8시

*5월 1일부터 2일 낮까지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하기 위한 철야 행동이 진행됩니다. 철야 행동에도 함께 합시다.

2015. 4. 28.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stu.workerssolidarity.org